

# 어촌(漁村) 심언광(沈彦光)의 영사시(詠史詩)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그 의미

박 명 희\*

## 차 례

1. 머리말
2. 어촌의 역사 인식과 영사시 창작
3. 어촌 영사시에 나타난 인물 형상
4. 인물 형상의 특질과 의미
5.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어촌 심언광의 영사시가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 속 인물 형상화에 주목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심언광이 영사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심언광이 영사시 44수를 통해 인물을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살피기 위해 전 작품을 검토하였고, 4장에서는 3장을 바탕으로 그 특질을 정리하였다. 그 첫 번째 특질은 영사시의 인물 형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절의, 일관된 삶, 소신, 나라에 대한 충성, 청렴, 알맞은 처세 등을 작품을 전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주제로 드러내었다. 두 번째 특질은 인물과 관련한 사건 중심으로 영사시를 형상화하여 그 인물의 됬됨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의 큰 사건과 연관 지어 그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특질은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어떤 인물의 죽음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체로 억울하게 죽은 경우를 들어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현실 인물을 직접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심언광이었기에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을 들어 평가함으로써 현실 속 불만을 해소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핵심어** : 어촌 심언광, 영사시, 「의영사(擬詠史)」, 『어촌집』, 강원도 강릉, 김안로(金安老) 인진(引進)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머리말

심언광(1487~1540)의 자는 사형(士炯)이고, 호는 어촌(漁村)이며, 본관은 삼척(三陟)이다. 태어난 곳은 강릉부 대창 용지촌이다. 심언광은 21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27세(1513, 중종8) 때 명경과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여러 관직을 두루두루 이어갔다. 심언광의 관력을 살펴보면, 30대 후반부터 40대 전반까지는 예조·병조·이조 정랑을 위시한 육조의 낭관직과 홍문관·사헌부·사간원 등 언론 삼사에 종사하였다. 특히, 홍문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능력은 문신의 정사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사가독서에 선발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40대 후반 이후에는 이조·병조·예조·공조 참판을 비롯하여 공조·이조·판서·함경도 관찰사,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공조 판서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를 인진(引進), 인재를 끌어 대응(應)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결국 관직을 삭탈 당하게 된다. 이때 심언광의 나이 52세(1538, 중종33)였다.<sup>1)</sup> 김안로는 누구인가? 허항(許沆)·채무택(蔡無擇)과 함께 정유삼흉(丁酉三凶)으로 불릴 정도로 정적이려면 공경(公卿)·종친(宗親)도 상관없이 축출하고 살해하면서 전횡무도한 공포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를 인진했던 까닭은 “내가 만일 다시 기용된다면 기묘사화 때 제현(諸賢)들의 누명을 모두 씻어 주겠다.”는 김안로의 말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초 말한 김안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게다가 김안로는 ‘보익동궁(輔翼東宮)’을 핑계로 허항 등을 사주하여 정적(政敵)이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축출하거나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다. 그래서 그때서야 심언광은 김안로에게 속았음을 알고 후회하였다. 그런데 김안로는 얼마 후 실각하여 절도(絶島)로 유배를 가 사사 당하였고, 심언광은 복직되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간의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간다.<sup>2)</sup>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심언광이 김안로를 인진한 사실은 그에게 큰 오점으로 남아 훗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렸으니 그로 인해 그는 이 세상을

1) 박도식, 「어촌 심언광의 삶과 생각」,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22쪽 참조.

2) 심언광이 김안로를 인진한 뒤의 상황 이해는 박도식의 전개 논문(26~33쪽) 및 한춘순의 논문(「어촌 심언광의 정치 역정과 생애」,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186~203쪽을 참조할 것.

뜨는 순간까지 인간 유형에 대한 고구(考究)를 끊임없이 했을 것이다. 또한 김안로가 다시 벼슬에 재등장하여 여러 사람 및 문인들을 죽이거나 유배를 보낸 일이 꼭 심언광 본인의 책임인 듯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심언광은 향리로 돌아간 뒤 「의영사(擬詠史)」라는 제목 아래 총 40명의 중국 역대 인물을 소재 삼은 시를 지었다.<sup>3)</sup> 심언광은 이 「의영사」 시를 통해 중국의 역대 인물 40명을 형상화했는데, 본 논문은 이 영사시를 대상으로 시에 나타난 인물 형상과 특징, 의미 등을 구명하려 한다. 전통 시대 영사시의 경우, 어떤 문인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적지를 들러 그 사적지에서 있었던 사실을 회고하며 시를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점에서 심언광의 영사시는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제목 아래에 40명의 중국 역대 인물을 선정해 각각 한 편씩 작품을 남겼기 때문이다. 인물에 대한 관심은 다시 말해 사람을 중시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어쩌면 심언광이 자신이 살아온 지난 과거에 만났던 인간 군상들을 중국 역사 속에서 찾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안로를 겉으로만 알고 인정한 일이 결과적으로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가를 알았던 심언광이기에 생애를 마감하면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한 결과가 바로 「의영사」 시라 생각한다.

심언광의 「의영사」 시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성과물로 강지희·박영주·박위명·반재유 등의 논문이 있다. 심언광의 영사시 연구에 포문을 연 사람은 강지희인데, 그는 「어촌 심언광 영사시(詠史詩)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이라는 논제를 통해 영사시의 제양상을 ‘절의의 표창’, ‘恨死에 대한 탄식’, ‘진퇴의 문제’, ‘명철보신의警戒’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sup>4)</sup> 그리고 박영주와 박위명은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주제적 특징」이라는 각각의 논제 속에서 심언광의 영사시를 간략히 정리하였다.<sup>5)</sup> 반재유는 「어촌 심언광의 역사제재 한시에 관한 고찰」

3) 심언광은 총 850수의 한시 작품을 남겼다. 본 논문은 심언광의 문집 『어촌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24)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2006년에 강릉문화원에서 간행한 『국역 어촌집』을 참고삼았음을 밝힌다.

4) 강지희, 「어촌 심언광 영사시(詠史詩)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49~81쪽.

5) 박영주,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136쪽; 박위명,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주제적 특징」,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2, 강릉문화원, 2018, 22쪽.

이라는 노재를 통해 심언광의 문집 속 역사 제재 한시를 집중 논의하였다.<sup>6)</sup>

본 논문은 지금까지 기록한 심언광 영사시에 대한 연구 성과물을 수용하며, 「의영사」 시가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영사시 속 인물 형상에 주목하려 한다. 즉, 심언광은 인물을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주로 이끌어가려 한다. 이는 몇 작품만 근거로 들어 언급하기 보다는 영사시 전편을 들어 살폈을 때 진정 논의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심언광의 영사시 전편을 들어 그 속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명한 뒤 그 결과 특질과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본 논문이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15~16세기를 살았던 한 문인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어촌의 역사 인식과 영사시 창작

심언광은 어려서부터 역사를 섭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7)</sup> 그런 이유 때문인지 향시와 진사시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 벼슬살이하면서 상소문과 차자문(劄子文)을 올릴 때도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끌어다 썼다. 그 예로 43세(1529, 중종24) 때 작성한 「십점소(十漸疏)」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은나라 고종이 뜻을 겸손하게 하여 때로 배우거나 주나라 성왕이 학문이 이어지고 밝아져서 광명한 경지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면, 부지런하기를 싫어하고 게을러진 데에 이제 거의 가깝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나라 무제는 갓옷을 불사른 마음이 게을러져서 양이 끄는 수레를 댓잎으로 유인하는 음란한 짓을 하였고, 당나라 현종은 개원의 치가 게을러져서 천보의 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찌 이 두 임금의 잘못

6) 반재유, 「어촌 심언광의 역사제재 한시에 관한 고찰」, 『연민학지』 41권, 연민학회, 2024, 349~375쪽.

7) 심언광이 젊어서부터 역사를 섭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로 「역사를 섭렵하려고 조산의 작은 암자에 있으며 자문에게 부치다[以獵史 在助山小庵 劄子文]」(『어촌집』 권1)를 들 수 있다.

8) 심언광의 「십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송수환의 논문(「어촌 심언광의 ‘십점소(十漸疏)’ 고찰」,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263~290쪽을 참조할 것.

일 뿐이겠습니까. 보필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sup>9)</sup>

‘십점’이란 정사(政事)를 하는 데 있어서 저지르기 쉬운 열 가지의 잘못될 조짐이라는 뜻으로, 당나라의 명재상인 위징(魏徵)이 태종에게 올린 상소가 그 처음이다. 태종의 수신(修身)과 정치가 점점 태만해지자 임금이 태만해지는 열 가지의 조짐을 열거하여, 태종이 경계하도록 했던 것이다. 위 심언광이 쓴 「십점소」는 일곱 번째 조짐을 적은 내용에 나온다. 심언광은 일곱 번째 조짐에서 왕에게 경연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는데, 우선 은나라 고종과 주나라 성왕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원문에 나온 ‘손지시민(遜志時敏)’과 ‘집희광명(緝熙光明)’은 『서경』 「열명」과 「경지」 편에 각각 나오는 말이다. ‘손지시민’은 “뜻을 겸손하게 하여 때로 배운다.”라는 뜻이고, ‘집희광명’은 “학문이 이어지고 밝아져서 광명한 경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언광은 만일 은나라 고종과 주나라 성왕이 뜻을 겸손히 하여 때로 배우지 않았거나 학문이 이어지고 밝아져서 광명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거의 게으른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 말한 것이다. 즉, ‘게으름’을 경계한 말이다. 그 다음에도 중국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말하였는데, 이번에는 진나라 무제와 당나라 현종을 들었다. 원문에서 진나라 무제와 관련해 말한 ‘분구(焚裘)’의 ‘갓옷’은 바로 썩은 머리 깃털로 장식한 치두구(雉頭裘)를 가리킨다. 일찍이 진나라 무제에게 태의(太醫) 사마정거(司馬程據)가 치두구를 바쳤는데, 무제는 기이한 기어나 의복은 전례(典禮)에 금지된 것이라 하여 전전(殿前)에서 불사르게 하였다. 그런데 무제가 오나라를 평정한 뒤에 연회를 자주 열어 정사를 게을리 하였다. 거느린 궁녀의 수가 무려 1만여 명이나 되었는데, 무제는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양이 가는 대로 놓아두었다가 양이 머무는 곳의 궁녀와 잠자리를 했으므로 궁녀들은 앞 다투어 밧이를 문에 꽂고 소금물을 땅에 뿌려 양을 유인했다 한다.<sup>10)</sup> 심언광은 이어서 당나라 현종과 관련한 내용도 적었다. 현종은 한때 요승(姚崇)·송경(宋璟) 등의 명재상을 발탁하여 개원지치(開元之治)를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천보(天寶) 연간에는 혼란을 자초했는데, 후궁 양귀비(楊貴妃)에게 빠지고 간신 이임보(李

9) 沈彦光, 『漁村集』 卷8, 「十漸疏」, 如非商宗之遜志時敏 成王之緝熙光明 則厭勤成怠 今其幾矣 晉武帝焚裘之心怠 而爲竹葉羊車之淫荒 唐玄宗開元之治怠 而爲天寶之亂 此豈徒二君之過歟 輔之者 非其人也.

10) 진나라 무제와 관련한 내용은 통감절요 권26 「晉紀 世祖武皇帝」에 나온다.

林甫)를 등용하여 정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록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키고 서촉(西蜀)으로 파천하는 등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심언광은 진나라 무제와 당나라 현종 때의 어지러운 나라 상황을 언급하며,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보필하는 신하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한 나라의 왕이 정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데에 신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언광은 상소문과 차자문을 올릴 때 역사 속 사례 중에 비슷한 것이 있으면 끌어다 글을 쓰는 중에 인용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심언광은 역사에서 소재를 끌어다 40여 편이 넘는 영사시를 지었다. 그 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소군의 원망[昭君怨], 「깊은 궁궐의 원망[深宮怨](이상 『어촌집』 권5)  
「북해에서 양을 기르다[北海牧羊], 「상산에서 지초를 캐다[商山採芝], 「영사를 모방하다[擬詠史](이상 『어촌집』 권10)

『어촌집』 권5는 「북정고(北征稿)」로 심언광이 함경도 관찰사 시절에 지은 시를 모은 것이다. 심언광이 그의 나이 51세(1537, 중종32) 8월 김안로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관찰사로 좌천된 적이 있었는데, 이 무렵에 지은 시를 따로 모아 「북정고」라 하였다. 「왕소군의 원망», 「깊은 궁궐의 원망」 등 작품은 이 「북정고」에 실려 있다. 그리고 『어촌집』 권10은 「귀전록(歸田錄)」이라 했는데, 이 「귀전록」은 심언광이 그의 나이 52세 때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뒤 시를 모아놓은 부분이다. 따라서 「북해에서 양을 기르다», 「상산에서 지초를 캐다», 「영사를 모방하다」 등은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간 뒤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에 나열한 제목만 보면, 심언광이 지은 영사시는 총 5편이라 말할 수 있으나 「영사를 모방하다」 제목 아래에 총 40수의 영사시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네 작품과 「영사를 모방하다」를 합하면, 심언광이 지은 영사시 작품은 총 5제 44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사를 모방하다」 제목 아래에 제시한 시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태공(太公)’, ‘이제(夷齊)’, ‘굴원(屈原)’, ‘오원(伍員)’, ‘신생(申生)’, ‘부소(扶蘇)’, ‘몽괄(蒙恬)’, ‘범증(范增)’, ‘사호(四皓)’, ‘항적(項籍)’, ‘외황아(外黃兒)’, ‘한신(韓信)’, ‘장량(張良)’, ‘가의(賈誼)’, ‘예양(豫讓)’, ‘주운(朱雲)’, ‘소망지(蕭望之)’, ‘왕가(王嘉)’, ‘마원(馬援)’, ‘공승(龔勝)’, ‘설방(薛方)’, ‘양웅(楊雄)’, ‘양진(楊震)’, ‘신도반(申屠蟠)’, ‘양표(楊彪)’, ‘장홍(臧洪)’, ‘제갈량(諸葛亮)’, ‘도잠(陶潛)’, ‘사비(謝朓)’, ‘심약(沈約)’, ‘심유지(沈攸之)’, ‘곡률광(斛律光)’, ‘위징(魏徵)’, ‘장구령(張九齡)’, ‘적인걸(狄仁傑)’, ‘오왕(五王)’, ‘악비(岳飛)’, ‘문천상(文天祥)’, ‘육수부(陸秀夫)’, ‘장세걸(張世傑)’

위 40명의 인물은 대체로 시대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물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나라를 위해 희생을 당했거나 자결했으며, 충신이나 명신(名臣)으로 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선정된 인물이 남송 시대에서 끝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추측은 가능하다. 「영사를 모방하다」 시를 통해 남송 이후 인물도 형상화하려고 했으나 특별한 이유, 가령 건강 등의 사유 때문에 작품 창작을 그만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심언광의 문집 『어촌집』의 편집 체제를 보면, 운문 부분이 대체로 작품을 창작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데, 「영사를 모방하다」 시가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심언광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문장을 지을 때 역사를 직접 활용했던 내용, 역사적 관심의 파생으로 창작한 영사시의 제목 등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심언광의 영사시 총 5제 44수에 나타난 인물 형상을 정리할 것이다. 영사시에 나타난 인물 형상에 주목하는 까닭은 5제 44수 작품이 주로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 3. 어촌 영사시에 나타난 인물 형상

첫 번째로 언급할 작품은 「왕소군의 원망」이다. ‘왕소군’은 전한 효원제(孝元帝) 때의 궁녀로, 명비(明妃)라고도 한다. 원제가 후궁이 매우 많아 그림으로 시중들 여인을 고르려고 했는데, 왕소군은 뇌물을 쓰지 않아 화공이 제대로 그려주지 않았으므로 천자를 모시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흉노(匈奴)가 그들의 왕비로 삼을 미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기에, 그림을 보고 왕소군을 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왕소군이 흥노로 떠날 때 원제가 그녀를 불러서 보니 후궁 가운데 제일 미인이었으므로 노하여 화공들을 모두 처형했다 한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한 곡조 비파 소리에 깊은 생각 잠기고, 달 지자 일어나 호산을 향한다. 절로 아름다운 얼굴 지니면 명이 짧나니, 황금은 곱고 추함에 어긋나는 것 아니다.[琵琶一曲瀉幽思, 起向胡山落月時. 自分紅顏常薄命, 黃金未必誤妍媸.]”<sup>11)</sup>라 하였다. 심언광은 전구를 통해 왕소군의 미색이 뛰어나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다른 궁녀들이 화공들에게 뇌물을 주었던 사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작품은 「깊은 궁궐의 원망」이다. 심언광은 “미인의 고운 눈썹에 똑 같이 분단장하여, 남궁이 노래 부르며 웃으니 북궐이 찡그린다. 양 수레 끊어져도 청춘은 늙지 않아, 이로부터 화려한 용모 사람 감동치 못했네.[一種蛾眉粉黛均, 南宮歌笑北宮嚙. 青春未老羊車斷, 自是容華不動人.]”<sup>12)</sup>라 읊었다. 이 시는 앞 2장의 인용문 내용 중에 나온 진나라 무제와 관련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진나라 무제가 오나라를 평정한 뒤 정사를 게을리 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양이 가는 대로 놓아두었다가 양이 머무는 곳의 궁녀와 잠자리를 했다 하였다. 따라서 시 기구에서 말한 ‘미인’은 수많은 궁녀를 가리킨다. 심언광은 전구와 결구를 통해 궁녀들이 미색으로 무제를 유인하려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세 번째 작품은 「북해에서 양을 기르다」이다. 심언광은 “흰 눈과 겹겹 얼음으로 손가락 떨어져나가는 추위라, 십년 간 완벽한 절의 최고 어려웠으리라. 훗날 무릉에서 떨어지는 눈물 감내했으니, 한 조각 붉은 내 마음 알아줄는지,[白雪玄氷墮指寒, 十年完節最艱難. 茂陵他日堪垂淚, 肯識吾心一寸丹.]”<sup>13)</sup>라고 읊었다. 이 작품은 전한 무제 때 흥노로 사신 갔다가 19년 동안 억류되어 양을 쳤던 소무(蘇武) 이야기를 소재 삼았다. 전구에서 말한 ‘무릉’은 한나라 무제의 묘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심언광은 이 작품을 통해 소무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절의를 지켰던 점을 부각시켰다.

네 번째 작품은 「상산에서 지초를 캐다」이다. 심언광은 이 작품을 읊기를 “세상 잇는다면서 어이해 아직 잊지 못하는지, 세자 정해 되레 백성을 구제하였

11) 沈彦光, 『漁村集』 卷5, 「昭君怨」

12) 沈彦光, 『漁村集』 卷5, 「深宮怨」

13) 沈彦光, 『漁村集』 卷10, 「北海牧羊」



다. 몸 일으켜 잠시 경륜 솜씨 시험했으나, 필시 유후 책략이 좋다고만 할 순 없다.[忘世如何尙未忘, 定儲猶足濟黔蒼. 起來暫試經綸手, 不必留侯策獨良.]”<sup>14)</sup>라 하였다. 이 작품은 진나라 시황제(始皇帝) 때 국란을 피해 상산(商山)에 들어가 몸을 숨겼던 네 명의 은사, 곧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 선생(甬里先生) 등과 관련된다. 이들은 모두 눈썹과 수염이 하얗게 되어 ‘사호(四皓)’라 불렸다. 결국에서 말한 ‘유후’는 한나라의 고조 유방(劉邦)의 책사 장량(張良)을 가리킨다. 장량은 한때 숨어 지내던 상산사호를 불러내어 진황실의 세자를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심언광은 상산사호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는데, 특히 장량이 그들을 불러내어 세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했던 점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말하였다. 심언광이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음을 드러낸 시이다.

다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태공’이다. 심언광은 이 시를 읊기를 “몇 년 간 기영에서 풍류를 흥내 내더니, 흰머리로 낚싯대 드리어 결국 주를 낚았네. 위천에서 귀 씻을 만한지 알 수 없으나, 목야에서 무용 떨침은 무얼 구하려 함인가.[幾年箕穎擬風流, 白首垂竿竟釣周. 未識渭川堪洗耳, 鷹揚牧野欲焉求.]”<sup>15)</sup>라 하였다. 이 시는 강태공(姜太公)을 주인공으로 삼아 읊었다. 강태공은 주나라 초기의 정치가로, 문왕(文王)이 위수(渭水) 가에서 처음 그를 만나 스승으로 삼았고, 그 뒤에 무왕(武王)을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심언광은 이 시를 통해 강태공이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한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여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이제’이다. ‘이제’는 은나라 말 고죽국(孤竹國)의 두 왕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지칭한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당당한 대의로 말고삐 잡고 진달했으나, 은나라 망한 때 어찌 삼인만 있었겠는가. 죄인 풀어주고 봉분을 힘써 먼저 할 뿐, 서산에서 굶어죽은 사람을 조문하지 않네.[大義堂堂扣馬陳, 殷亡豈獨有三仁. 釋囚封墓徒先務, 不問西山餓死人.]”<sup>16)</sup>라 하였다. 심언광은 백이숙제가 어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앞 시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절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14) 沈彦光, 『漁村集』 卷10, 「商山採芝」

15)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太公’

16)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夷齊’

일곱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굴원’이다. 굴원은 전국 시대 초나라의 정치가로, 소신이 곧고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국화 되레 풍족해 삼려대부 배불렀는데, 형색은 마르고 초취하니 다시 그대 비웃네. 산북과 산남은 원래 그대로 있나니, 강물고기에 장례 치르기 쉽지 않았으리.[菊英猶足飽三閭, 色悴形枯更笑渠. 山北山南元自在, 不須容易葬江魚.]”<sup>17)</sup>라 하였다. 심언광은 마지막까지 소신을 저버리지 않은 굴원을 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써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결국 절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오원’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몸소 부차 섬김은 도리 바로 잡기 위함이나, 자서는 되레 돌아가 의지할 곳 알지 못했네. 눈알 빼서 동문에 건 것 명철하지 않으나, 오나라 망함 보려 할 뿐 기회 보려함 아니네.[身事夫差欲彌違, 子胥猶未識依歸. 東門掛眼非明哲, 只見吳亡不見機.]”<sup>18)</sup>라 하였다. 오원은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자는 자서(子胥)이다. 그는 초나라 왕이 죄 없이 아버지와 형을 죽이자 오나라로 망명하여 오왕 부차(夫差)의 신하가 되었다. 그러나 부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데, 심언광은 이를 주로 시에서 부각시켰다. 다시 말해 오자서와 같은 충신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시에 드러내었다.

아홉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신생’이다. 심언광은 시에 읊기를 “주욱 돌려보면 내 마음 본래 효심이건만, 궁궐 한밤중에 요희가 우는구나. 십년 진나라에 편안한 세월 없었으니, 그 뉘 여용이 재앙 씨앗인 줄 믿었을까.[歸胙吾心本孝思, 宮中夜半泣妖姬. 十年晉國無寧歲, 誰信驪戎是禍基.]”<sup>19)</sup>라 하였다. 신생은 춘추 시대 진(晉)나라 헌공(獻公)의 태자이다. 헌공이 몹시 총애하던 애첩 여희(驪姬)가 자신의 아들 해제(奚齊)로 하여금 헌공의 뒤를 잇게 하려고 태자 신생이 아버지 헌공을 독살하려 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생한테 사실을 밝혀 억울한 누명을 벗으라고 권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라 했으나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결하였다. 심언광은 신생이 아버지 헌공에게

17)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屈原’

18)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伍員’

19)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申生’

효심을 보였던 내용과 여희가 요부(妖婦)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한 여인으로 인해 진나라가 편안하지 못했던 상황을 부각시켰다.

열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부소’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북해의 감군이 만리 밖에 있는데, 중도에 거짓 조서로 나라 세자 죽였네. 군대 돌렸으나 함양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자, 이사와 조고에게 나아가 말린 고기 묻네. [北海監軍萬里餘，中車矯詔殺邦儲。還師不返咸陽路，一就斯高問鮑魚。]”<sup>20)</sup>라고 하였다. 부소는 진시황제의 장남으로, 시황제의 둘째 아들 호해(胡亥)를 옹립하려는 승상 이사(李斯)와 환관 조고(趙高)에 의해 희생되었다. 심언광은 시에서 부소가 억울하게 죽었던 사실과 이사와 조고의 만행을 부각시켰다.

열한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몽염’이다. 심언광은 시에서 “당시 임금 곁에 조고와 이사 있어, 천하가 전복될 위기 이미 알만했지. 손에 중한 병사 30만을 쥐고서도, 원한 머금고 헛되이 죽으니 어찌 사나이일까.[當時君側有高斯，天下顛危已可知。手握重兵三十萬，含冤徒死豈男兒。]”<sup>21)</sup>라 읊었다. 몽염은 진나라의 장수로, 시황제 때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용적(戎狄)을 북쪽으로 축출하는데 공을 세웠고, 만리장성을 수축할 때 총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훗날 조고의 계략에 휩쓸려 그만 자결하였다. 심언광은 시를 통해 몽염의 헛된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는데, 희생자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열두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범증’이다. 심언광은 시에서 “한이 금으로 항왕 계책 처음 그르치자, 등창이 터졌으니 되레 소장부 같다. 이로부터 목후와 오훤은 같은데, 왜 일찍 조각배 타고 도주공 배우지 않았는가.[漢金初誤項王圖，疽背還如小丈夫。自是沐猴同鳥喙，扁舟早不學陶朱。]”<sup>22)</sup>라 하였다. 범증은 초나라 항우(項羽)의 모신(謀臣)이다. 홍문(鴻門)의 연회에서 유방을 죽이자는 암시로 항우에게 눈짓을 하며 옥결(玉玦)을 세 번 들어 보였으나 항우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결국 유방은 번쾌(樊噲)의 도움으로 그곳을 탈출하였다. 훗날 유방의 반간계(反間計)로 항우의 의심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화병으로 등창이 돌아 팽성(彭城)에서 죽었다. 심언광은 이 작품에서 범증이

20)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扶蘇’

21)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蒙恬’

22)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范增’

항우의 부하가 되어 화병으로 등장이 터져 죽어 ‘소장부’ 같더라 하였다. 이는 곧, 범중의 죽음이 헛되더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차라리 월왕 구천을 도왔던 범려처럼 도 땅의 주공이 되어 부(富)라도 쌓은 것이 더 낫더라 하였다. 범중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열세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사호’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치초 캐는 즐거움 넉넉한데도, 진시황과 유방은 일찍이 유거 찾지 않았지. 만년에 마음 바꾸니 되레 일도 많아져, 나와서 장량 위해 한나라 세자 정하였네. [採瓊芝樂有餘, 嬴劉曾不訪幽居. 翻嫌晚歲還多事, 出爲留侯定漢儲]”<sup>23)</sup>라 하였다. 이 시는 앞에서 본 네 번째 작품 「상산에서 지초를 캐다」와 관련된다. 심언광은 이 시에서도 사호가 한때 은거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리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네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항적’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장사 노래 옥 장막 속에서 구슬프니, 팔천 병사 흩어지고 패왕 도모도 다했네. 강동의 부로들 모두가 원수로 여기며, 오강 건너는 것도 용납하지 않네. [壯士悲歌玉帳中, 八千兵散霸圖窮. 江東父老皆仇敵, 縱渡烏江亦不容]”<sup>24)</sup>라 하였다. 항적은 초나라의 항우를 말한다. 기구 내용은 항우가 해하(垓下)에서 한나라 군사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곤경에 처하자 장막 속에서 우미인(虞美人)과 함께 술을 마시며 부른 노래와 관련된다. 항우는 결국 오강(烏江)에 이르러 그의 근거지인 강동(江東)으로 건너가 재기하려 하지 않고 그곳에서 자결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심언광은 이 시에서 항우의 잘잘못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재기하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열다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외황아’이다. 심언광은 시에서 “사람을 많이 죽여 무리 마음 떠나게 하고, 신안에 다 묻으니 차마 할 수 있겠는가. 서초 군신은 모두 지혜롭지 못하니, 도모 잘한 외황아와 그 닮을까. [殺降徒使衆心離, 坑盡新安尙忍爲. 西楚君臣皆不智, 善謀誰似外黃兒]”<sup>25)</sup>라 읊었다. 외황아는 외항 땅의 아이를 말한다. 초나라의 항우가 진유(陳留) 땅을 공격하였는데, 외황이 항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항우가 외황을 항복시킨 다음에는 그

23)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四皓’

24)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項籍’

25)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外黃兒’

지역 사람들을 모두 땅에 파묻어 죽이고자 하였다. 그때 외황 령(令)의 사인(舍人)으로 있던 열세 살 먹은 아이가 항우에게 가서 유세하는 말을 하자, 항우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파묻어 죽이려고 하였던 사람들을 모두 사면해 주었다. 심언광은 시를 통해 초나라 군신과 외항아를 서로 대비하여 외항아의 지혜로움을 극찬하였다.

열여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한신’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용기와 지혜 참으로 뛰어나 항우 유방 아울렀고, 신하 되어 괴통처럼 숨어살지 않았네. 관대하고 어진 한 고조 되레 시기하자, 훗날 운몽에서 거짓 유망 하였네.〔勇智眞堪竝項劉，爲臣不用蒯生謀。寬仁漢祖猶猜忌，雲夢他年作僞游。〕”<sup>26)</sup>라 하였다. 한신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던 대표 신하이다. 승구에서 말한 ‘괴통’은 당시의 유세가인데, 어느 날 한신한테 유방을 배신하도록 설득했으나 한신은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하며 거절하였다. 심언광은 한신이 용기와 지혜가 뛰어나며, 위기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점을 칭찬하였다.

열일곱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장량’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집안 대대로 한나라 신하로 원수를 이미 갚았고, 유후로 봉해지자 되레 적송자와 노닐었네. 황실 은총 있으리라 맹약 있었으나, 열후를 내리고도 육장 형벌 분분하네.〔家世臣韓已報仇，封留還與赤松遊。山河帶礪盟猶在，菹醢紛紛賜列侯。〕”<sup>27)</sup>라 하였다. 장량은 유방을 도와 한나라가 천하 통일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신하이다. 그러나 한나라가 천하를 얻자 은거의 삶을 살았는데, 이 때문에 한나라가 통일한 이후 열후억멸책(列侯抑滅策)에 의거해 수많은 공신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심언광은 장량의 슬기로운 대처에 대해 칭찬한 반면, 한나라가 통일 후 행한 열후억멸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열여덟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가의’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통곡하며 준엄하게 말함은 본래 임금 사랑해서이니, 이 같은 인재를 한나라에서 듣지 못했네. 주발과 관영 의심과 꺼림을 많이 받았으나, 장사에서도 문제를 원망하지 않았네.〔痛哭危言本愛君，人才似此漢無聞。只緣絳灌多疑忌，不向長沙

26)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韓信’

27)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張良’

怨孝文]”<sup>28)</sup>라 하였다. 가의는 전한 때 최연소 박사가 된 문인 겸 학자이다. 그는 불과 스무 살의 어린 나이로 문제(文帝)의 깊은 신임을 얻어 태중대부(太中大夫)로 발탁되어 여러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다가 당시 대신이었던 주발(周勃), 관영(灌嬰) 등의 참소를 입었다. 그리하여 문제의 신임을 잃고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어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심언광은 시에서 가의의 임금에 대한 충심과 사람 됨됨이가 훌륭했다는 것을 주로 부각시켰다.

열아홉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예양’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옷칠에 숯 삼켜 완전한 절개 따르기 어려우나, 빛은 태양과 다투니 나란히 밝고 뚜렷하네. 진정 부끄러움 없어 구차하게 살려 도 빙자하여, 하얗게 센 머리 수그리고 다섯 조정 섬기랴.[完節難隨漆炭消, 光爭烈日竝昭昭. 偷生憑道真無恥, 白首低顏事五朝.]”<sup>29)</sup>라 하였다. 예양은 전국 시대 진(晉)나라의 의사(義士)로 알려져 있다. 진나라의 경(卿)이었던 범씨(范氏)·중행씨(中行氏)를 섬겼으나, 뒤에 지백(智伯)의 신하가 되어 충애를 받았다. 그런데 지백이 조양자(趙襄子) 등에게 죽임을 당하자 예양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온몸에 옷칠을 바르고, 숯을 삼켜 병어리 행세까지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결국 자결하였다. 심언광은 기구와 승구에서 예양이 했던 행동을 적은 뒤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시는 예양의 지백에 대한 절의를 예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무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주운’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간사한 사람이 황제 곁에 있음을 성내고 미워해, 충성을 도모했으나 안창후 죽여 분풀이 못했네. 대장부는 절로 허리에 칼을 차야지, 어찌 상방의 참마검을 빌리려 했는가.[憤疾儉邪在帝傍, 忠謀未解殪安昌. 丈夫自有腰間劍, 斬馬何須借上方]”<sup>30)</sup>라고 하였다. 주운은 한나라 때의 직신(直臣)이다. 성제(成帝) 앞에서 “상방참마검을 빌려 주시면 아첨하는 신하 한 사람의 목을 베어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지목하였다. 장우는 당시 정승 벼슬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귀를 위해 왕씨의 전횡을 직언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말만 하였다. 그래서 주운이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것이다. 주운은

28)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賈誼’

29)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豫讓’

30)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朱雲’

이 일로 인해 결국 쫓겨나는데, 훗날 성제는 그의 충심을 깨닫게 된다. 심언광은 주운이 참마감을 빌리려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하며, 충심으로 장우를 죽이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다.

스물한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소망지’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내시의 깊은 뿌리 애써 없애지 못하더니, 어지러운 나라에 살다 목숨 잃고 말았네. 관직은 사부 되어 우둔한 군주임을 알았으나, 명철하기론 당시의 이소에 부끄럽다.[關宦深根力未鋤, 殞身應坐亂邦居. 官爲師傅知昏主, 明哲當時愧二疏.]”<sup>31)</sup>라고 하였다. 소망지는 한나라 원제(元帝)의 사부로 성질이 강직하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다.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권력을 남용하던 환관 홍공(弘恭)·석현(石顯)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아 모함을 받기에 이르자 소망지는 나이 60이 넘어 구차히 살지 않겠다 말하며 자결하였다. 결국에서 말한 ‘이소(二疏)’는 한나라 선제(宣帝) 때 소광(疏廣)과 그 조카 소수(疏受)를 가리킨다. 소광은 태자태부(太子太傅)이고 소수는 태자소부(太子少傅)였는데, 소광이 소수와 함께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친자와 태자가 성대히 전별하였다. 즉, 소망지와 벼슬이 비슷한 두 사람을 들어 말하였다. 심언광은 소망지가 환관들이 판을 치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다가 목숨을 잃은 것을 형상화 했으며, 한편으론 사부인데도 불구하고 명철하지 못했다 꼬집었다.

스물두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왕가’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뚝은 간사함 제거하고 어진 데 나아가고자 했으나, 정권 잡은 고안후의 기세는 하늘까지 치솟네. 잔 들어 땅을 쳐서 진실로 분노하였고, 대질해 원통함 진술하니 어찌 온전할까.[志在除邪又進賢, 高安當路勢燻天. 引杯擊地眞思憤, 對理陳冤豈苟全.]”<sup>32)</sup>라 하였다. 왕가는 한나라 애제(哀帝) 때의 승상이다. 승구에서 말한 ‘고안(高安)’은 당시 고안후에 봉해진 동현(董賢)을 가리키는데, 그는 애제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 그러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어느 날 애제가 동현에게 봉호(封號)를 더하려 하자 왕가가 조서(詔書)를 돌려보내면서 부당함을 극력 간하였다. 왕가는 이 때문에 옥에 갇혀 결국 20여 일 동안 음식을 끊고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심언광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왕가를 형상화하였다. 결국 왕가가 소신이 강한 신하였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31)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蕭望之’

32)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王嘉’

스물세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마원’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우뚱하게 구리 기둥 변방에 세웠으나, 참소와 비방 분분해 도모하던 포부 꺾였네. 어찌 양송에게 재앙의 빌미를 주었는가, 끝내 울무가 명주라는 비방 당하였네.〔巍然銅柱立邊隅，讒毀紛紛挫壯圖。豈但梁松爲禍崇，終令薏苡作明珠。〕”<sup>33)</sup>라 하였다. 마원은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 무장이며 정치가로, 일찍이 교지(交趾, 현 베트남 북부)를 정벌한 적이 있다. 전구에서 말한 ‘양송(梁松)’은 당시 왕의 부마였는데, 마원이 병이 들어 문병 갔을 때 답례하지 않았다 하여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마원이 교지국에 있을 때 장기(瘴氣)를 이겨 내려고 울무를 먹다가 귀국할 때 한 수레 가득 그 씨앗을 싣고 왔는데, 그가 죽은 뒤에 명주(明珠)를 몰래 싣고 왔다고 참소한 자가 있었다. 심언광은 마원이 능력 있는 정치가이자 무장인데도 참소를 당했던 것이 안타까워 주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인물을 그렸다.

스물네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공승’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광록으로 일찍이 한실의 신하 되었으나, 그 뉘 인끈을 함부로 몸에 더할 수 있을까. 평생 돌과 같은 굳은 지조 세웠으니, 만승으로도 끝내 한 사람 뜻 뺏기 어려웠네.〔光祿曾爲漢室臣，誰將甲綬謾加身。平生植操堅如石，萬乘終難奪一人。〕”<sup>34)</sup>라 하였다. 공승은 한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애제 때 광록대부(光祿大夫) 벼슬에 올랐다. 그런데 왕망(王莽)이 찬위(篡位)하여 벼슬을 주었으나 병을 이유로 나아가지 않았다. 심언광은 공승이 한나라에 대해 절개를 끝까지 지킨 것을 주로 나타내었다.

스물다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설방’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기산에 의탁해 거짓으로 신나라 기뻐함은, 한마디 말로 쉽게 몸을 온전히 하려 해서라. 정량으로 군자를 평가하게 하지 마시라, 되레 양웅이 왕망의 신하 됨보다 낫다.〔浪托箕山悅僞新，一言容易爲全身。莫將貞諒評君子，猶勝揚雄作莽臣。〕”<sup>35)</sup>라 하였다. 설방도 앞의 공승과 마찬가지로 왕망이 찬위한 뒤 벼슬을 주었으나 받지 않고 은둔하였다. 심언광은 이 시에서도 설방이 한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킨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렸다.

33)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馬援’

34)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龔勝’

35)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薛方’



스물여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양웅’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서한의 풍류 마침내 아침으로 흐르더니, 분분히 왕망을 칭송함에 나라에 선비 없어라. 평생 동안 글자 알아 결국 어디에 썼는가, 부질없이 신도에 가서 대천이 되었네.[西漢流風竟詔諛, 紛紛頌莽國無儒. 平生識字終安用, 謾向新都作大天.]”<sup>36)</sup>라고 하였다. 양웅은 한나라 성제(成帝) 때의 학자로 덕망이 높았는데, 훗날 왕망이 찬위해 세운 신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절개가 없다 하여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다. 심언광은 앞의 공승과 설방은 한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킨 사람으로 칭송했는데, 반면 양웅은 왕망에게 아첨한 사람으로 그려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스물일곱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양진’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밤에 사지라 하며 황금 물리쳤으니, 관서에 참된 공자가 있었네. 석양 정자 끝 원통함을 그 뉘 발설할까, 무덤 앞에 큰 새만 슬픈 모습 보일 뿐.[夜却黃金爲四知, 關西真箇有宣尼. 夕陽亭畔冤誰洩, 只見墳前大鳥悲.]”<sup>37)</sup>이라 하였다. 양진은 후한 때의 현인(賢人)으로 ‘관서 공자(關西孔子)’라는 칭호를 들었다. 그리고 박학하고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았다. 일례로 기구에서 말한 ‘사지(四知)’는 그의 청렴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양진이 형주(荊州) 자사가 되어 행차 중에 형주무재(荊州茂才) 왕밀(王密)이 찾아와 황금 10근 바치면서 “깊은 밤이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양진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며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 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이후 태위(太尉) 벼슬에까지 올라 외척과 환관의 발호를 막기 위해 애를 쓰다가 오히려 참소를 받고 면직되자 분개하여 음독자살하였다. 장사 지내는 날 큰 새가 날아와 관 앞까지 천천히 걸어간 다음 멈춰 서서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심언광은 양진의 청렴함을 부각시키며, 원통하게 죽은 것을 드러내었다.

스물여덟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신도반’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당적에서 명성 피해 도망쳐 일민이 되었으니, 어찌 고상한 사람이 간흉의 더럽힘 입을까. 채옹과 순상은 어찌 그리 낮짝 두꺼운가, 끝내 미후 위해 그 몸을 굽혔었지.[黨籍逃名作逸民, 姦兇豈合浼高人. 蔡邕苟爽顏何厚, 終爲鄆侯屈此身.]”<sup>38)</sup>라 하였다. 신도반은 후한 때 사람으로, 오경(五經)에 박통하고 참위

36)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揚雄’

37)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楊震’

설(讖緯說)에 밝았다. 그는 당고(黨錮)의 화를 예견하고 자취를 감추어 벼슬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심언광은 신도반을 ‘고상한 사람’이라 지칭하였고, 그의 동시대를 살았던 채옹·순상과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스물아홉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양표’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청백리 양씨 집에 대대로 사람이 있어, 공경으로 대를 이어 경륜을 이어갔네. 각련으로 스스로 몸 온전히 하는 계책 삼았는데, 간웅은 황제를 빈번히 협박하는 일 있었네. [清白楊家世有人, 公卿赫葉繼經綸. 脚躡自是全身策, 爲有姦雄脅帝頻.]”<sup>39)</sup>라 하였다. 양표는 후한 때 사람으로, 한자성어 계륙(鷄肋)으로 알려진 양수(楊脩)의 아버지이다. 양표 집안은 조상 대대로 태위 벼슬을 지낸 것으로 유명하다. 양표는 한나라가 장차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다리 경륜을 핑계로 조정에 다시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에서 말한 ‘간웅(姦雄)’은 조조(曹操)를 가리킨다. 심언광은 전구에서 한나라가 망해가는 즈음에 양표가 처세를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었다.

서른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장홍’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한 편의 글로 공장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고, 열사는 영성하여 여러 사람의 존경 받았네. 다시 진용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죽게 하였으니, 바야흐로 충의로 사람 깊이 감동시킴 알겠네. [一書能愧孔璋心, 烈士嬰城衆所欽. 更使陳容同日死, 方知忠義感人深.]”<sup>40)</sup>라 하였다. 장홍은 후한 말 사람이다. 장초(張超)가 응구(雍丘)에 있다가 조조에게 포위되자 장홍이 장차 와서 구해줄 것이라 하였다. 당시 동군 태수로 있던 장홍이 장초를 구하러 가기 위해 원소(袁紹)에게 군사를 요청했으나 허락 받지 못해 결국 장초는 자살한다. 이 때문에 장홍은 원소를 미워하게 되는데,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 장홍이 있는 곳을 포위하였으나 한 해가 지나도록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진림(陳琳)을 시켜 서신을 보냈고, 그에 대해 장홍이 답장을 보내왔다. 기구에서 말한 ‘공장(孔璋)’은 진림의 자이다. 기구는 진림의 서신에 대해 장홍이 답장을 보낸 것을 읽고, 진림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음을 말한 것이다. 심언광은 승구에서 장홍을 가리켜 ‘열사’라 하였다. 그리고 같은 고을 사람 진용(陳容)이 평소 장홍을 존경했는데, 장홍이 원소

38)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申屠蟠’

39)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楊彪’

40)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臧洪’

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함께 죽었다. 심언광은 장흥이 열사요, 충의를 지닌 사람이라 형상화하였다.

서른한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제갈량’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업하에서 변화하게 황제 궁을 일으키나, 자잘하고 용렬한 촉나라는 어이할까. 일찍이 후주가 위나라 빈객 될 줄 알았다면, 초가집에 누워 몸 마침이 합당했으리라.[鄴下繁雄作帝居，區區庸蜀欲何如。早知後主終賓魏，只合終身臥草廬。]”<sup>41)</sup> 하였다. 제갈량은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이다. 유비(劉備)의 삼고초려(三顧草廬) 예의에 감동하여 유비를 도와 오(吳)나라와 연합하여 조조의 위나라 군사를 적벽에서 대파하고 파촉을 얻어 촉한을 세우고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전구에서 말한 ‘후주(後主)’는 유비의 아들 유선(劉禪)을 가리킨다. 유선은 유비를 이어 촉한의 제2대 왕에 올랐으나 위나라에 항복하였다. 심언광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촉한이 망할 줄 알았다면 제갈량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서른두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도잠’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선조의 품모와 재능은 장사에서 출발하여, 진나라의 충신은 대대로 이어졌네. 눈 가득 산하는 초목이 새로운데, 동쪽 올 진나라 국화는 옛 모습 그대로네.[祖先風範自長沙，典午忠臣是世家。滿目山河新草木，東籬依舊舊黃花]”<sup>42)</sup> 하였다. 도잠은 동진(東晉) 때의 시인이요, 문장가이다. 그가 지은 시 「음주(飲酒)」 12수 중 제5수에 “동쪽 올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유연히 남산을 바라보네.[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은 잘 알려져 있는데, 심언광은 결구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즉, 도잠의 시적 능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른세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사비’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당시의 품모와 절도는 사가를 말하고, 휴문이 밀조 품음은 얼굴이 매우 두꺼워 서라. 은사가 무슨 일로 양무에게 돌아갈까, 만년의 신명이 이하에게 부끄러우리.[風節當時說謝家，休文懷詔厚顏多。角巾底事歸梁武，末路身名愧二何。]”<sup>43)</sup> 하였다. 사비는 남조 송나라 사영운(謝靈運)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송나라·제나라·양나라 삼대에 걸쳐 벼슬을 했으나 훗날 은

41)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諸葛亮’

42)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陶潛’

43)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謝朓’

거의 삶을 살았다. 전구에서 말한 ‘양무(梁武)’는 양나라 무제를 가리키는데, 무제가 불려도 사비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만일 세상 밖으로 간다면 진(晉)나라의 은사(隱士) 하통(何充)과 하준(何準)에 부끄러울 것이라 하였다. 심언광은 사비가 벼슬한 내용보다는 은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주로 언급하였다.

서른네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심약’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에게 은혜 미친단 말 없고, 소량의 시역은 과연 그 누구 때문인가. 꿈속에 혀가 잘림은 진정 하늘의 재앙이건만, 일찍이 제나라 조정의 신하였었네. [端揆無聞惠及民, 蕭梁弑逆果誰因. 夢中斷舌眞天禍, 曾是齊庭北面人.]”<sup>44)</sup>라 하였다. 심약은 남북조 시대 양나라 학자로, 박학으로 시문에도 능하였으며 음운을 연구하여 『사성보(四聲譜)』를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심언광은 심약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에게 은혜가 미치지 않았더라 말하며, 심약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결구에서 심약을 ‘제나라 조정의 신하’라 했는데, 이는 제나라의 문혜태자(文惠太子)와 아우 경릉왕(竟陵王) 자량(子良)의 사랑을 받아 문단의 중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이라 추정한다.

서른다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심유지’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원유는 나라 망하자 강개했으나, 소공이 발호하니 세력 감당키 어려웠네. 장군은 선황과의 맹세 저버리지 않았으니, 홀로 깊은 충정을 품고 두건을 가리키네. [慷慨袁劉爲國亡, 蕭公跋扈勢難當. 將軍不負先皇誓, 獨抱深衷指禰襦.]”<sup>45)</sup>라 하였다. 심유지는 남북조 시기 송나라의 장군이다. 기구에서 말한 ‘원유(袁劉)’는 원표(袁標)·유연희(劉延熙) 또는 원찬(袁粲)·유언제(劉彥第)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모두 송나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다. 승구의 ‘소공(蕭公)’은 곧, 양나라 무제 소연(蕭衍)이다. 심유지는 일찍이 선황 명제(明帝)와 맹세한 내용을 두건 안에 묶어 가지고 다녔는데, 전구와 결구에서 그것을 적었다. 심언광은 이 시를 통해 심유지의 변하지 않은 마음을 나타내었다.

서른여섯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곡울광’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명월의 유언비어 있자 어리석은 군주 놀라나, 서늘한 바람이 당 아래로

44)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沈約’

45)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沈攸之’

불고 혈흔이 분명하다. 형량의 한 마디 말은 마음에 더욱 분명하고, 조장은 끝내 눈먼 늙은이를 부끄럽게 하네.[明月飛謠暗主驚, 涼風堂下血痕明. 邢郎一語心猶白, 棗杖終教愧老盲.]”<sup>46)</sup>라 하였다. 곡울광은 북조 시대 북제의 장군으로, 자는 명월(明月)이다. 심언광은 곡울광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형상화하였다. 첫째, 북주의 장군 위효관(韋孝寬)이 퍼트린 유언비어를 믿고 어리석은 임금이 곡울광을 죽인 일과 둘째, 곡울광의 활숨씨를 보고 속형자고(屬邢子高)가 감탄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서른일곱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위징’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문항 만나 특히 지우를 입으니, 평생 직간 경계하여 진실한 충고 다했다. 현명한 군주와 총명한 신하가 만나 의심과 막힘 있었으나, 훗날 혼사를 정지하고 비석을 넘어뜨렸네.[遭遇文皇特受知, 平生諫戒盡忠規. 明良未必無疑阻, 他日停婚又踣碑.]”<sup>47)</sup>라 하였다. 위징은 당나라 태종(太宗)의 명재상으로, 직간(直諫)을 자주하여 시비득실을 분명히 가려주니 태종이 그를 거울로 삼았다. 그리고 위징이 병이 들어 위독할 때 당 태종은 형산공주(衡山公主)를 위징의 아들 숙옥(叔玉)에게 시집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징이 죽은 뒤 그가 천거했던 두 정륜(杜正倫)과 사군집(侯君集)이 죄를 축출되거나 역모를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자, 태종은 위징이 편당(偏黨)을 지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위징이 자신이 전후로 태종에게 간한 말들을 스스로 기록하여서 기거랑(起居郎)인 저수량(褚遂良)에게 보여 주었다고 참조하는 말을 듣고 태종은 더욱 화가 나서 공주와 숙옥의 혼사를 파기하고 자신이 세웠던 비석을 쓰러뜨렸다. 그 후 태종은 고구려 정벌이 실패로 돌아가자 “위징이 만약 있었더라면 집(朕)의 이번 정벌을 막았을 텐데.” 하고는 역마를 달려 보내어 소뢰(少牢)로써 위징을 제사하고 쓰러뜨렸던 비석을 도로 세웠다. 심언광은 시를 통해 위징과 당 태종이 만나 정사를 잘 했던 일을 적은 한편, 위징이 죽은 뒤 혼사를 정지시키고 비석을 넘어뜨린 일도 나타내었다. 궁극적으로 이 시는 임금과 신하의 좋은 만남이 있었음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생각한다.

서른여덟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장구령’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어양의 북소리 중원에 울려 퍼지고, 옥련이 구불구불한 검문을 나선다.

46)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斛律光’

47)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魏徵’

충언이 처음부터 쓰이지 않음 후회하니, 다른 해 곡강 혼령에 제 올려야 하리.  
[漁陽鼙鼓響中原, 玉輦崎嶇出劍門. 却悔忠言初不用, 他年追酹曲江魂.]<sup>48)</sup>라고 하였다. 장구령은 당나라 현종(玄宗) 때의 명재상이다. 이 시는 안녹산(安祿山)의 난으로 인해 현종이 피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장구령은 일찍이 안녹산이 반역할 상(相)이니,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라 하였다. 그런데 현종은 그 말을 듣지 않아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고서야 장구령의 말이 맞았음을 알고 후회하였다. 기구는 안녹산의 난이 일어난 모습을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 나오는 「어양의 북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오자, 예상우의곡 즐기던 임금님이 놀라셨네.[漁陽鼙鼓動地來, 驚破霓裳羽衣曲.]」라는 대목을 인용해 나타냈다. 절구에서 말한 ‘곡강(曲江)’은 장구령의 고향이다.

서른아홉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적인걸’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당나라 왕실 망할 즈음에 힘 쉬어 보존했나니, 강후는 문이 적으니 어찌 논의 감당할까. 한 마디 말로 측천무후 깨우쳐 종사 안정시켰으나, 군중에서 단번 묻는 것과 같지 않다.[唐室垂亡力易存, 絳侯文少豈堪論. 一言悟后安宗社, 不似軍中間袒煩.]”<sup>49)</sup>라 하였다. 적인걸은 당나라의 명재상으로 알려져 있다. 심언광은 시를 통해 적인걸이 이룬 업적 두 가지, 즉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조카 무삼사(武三思)를 태자로 삼으려는 것을 막아 당나라 황통(皇統)을 유지한 것과 거란의 내습(來襲)을 평정했던 일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전자 일은 후자 일과 같지 않다 말하며, 거란의 침략을 막아냈던 일을 더 큰 업적으로 평가하였다.

마흔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오왕’이다. 심언광은 시에서 읊기를 “우연으로 해가 저 날이 또 어두워지니, 팍 막혀 오왕의 원통함 비추지 못하네. 당시 상 위에 살점이 남아있는데, 어이해 풀은 제거하고 뿌리 제거하지 않는가.[取日虞淵日亦昏, 屯蒙未照五王冤. 當時机上留餘肉, 去草如何不去根.]”<sup>50)</sup>라 하였다. 오왕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평양군왕(平陽郡王)에 봉해진 경휘(敬暉), 부양군왕(扶陽郡王)에 봉해진 환언범(桓彦範), 한양군왕(漢陽郡王)에 봉해진 장간지(張柬之), 남양군왕(南陽郡王)에 봉해진 원서기(袁恕己), 박릉군왕(博陵郡王)에 봉해진 최원위(崔元暉)를 가리킨다. 이들은 측천무후가 몸이 아프자 몰래 반

48)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張九齡’

49)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狄仁傑’

50)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五王’

역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장역지(張易之)와 창종(昌宗) 등의 역모를 미리 알아채고 진압하였으나, 무삼사 등을 처형하지 않아 끝내 이들에게 모함을 받아 귀양 갔다가 처형되었다. 심언광은 이들 오왕이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시에 주로 나타내었다.

마흔한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악비’이다. 심언광은 시에 율기를 “평생 배반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기약했나니, 네 글자 분명한 것 절로 알겠네. 백일정충의 지조 지니고 죽었으나, 간웅은 나라 그르치며 몸만 보존하네.[平生涅背有心期, 四字分明只自知. 白日精忠齋志死, 姦雄誤國保腰支.]”<sup>51)</sup>라 하였다. 악비는 남송의 충신이며 명장이다. 그는 여러 번 금나라 군대를 격파했는데, 진회(秦檜)의 모함에 걸려 39세의 나이로 옥사(獄死)하였다. 결구에서 말한 ‘간웅(姦雄)’은 곧, 진회를 가리킨다. 또한 악비가 죽은 뒤 그의 몸을 살펴보니, ‘진충보국(盡忠報國)’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승구에서 말한 ‘사자(四字)’는 곧, 진충보국을 가리킨다. 심언광은 이 시를 통해 충신 악비와 간신 진회를 서로 대비시켜 악비의 인물 됴됨이를 부각시켰다.

마흔두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문천상’이다. 심언광은 시에서 율기를 “연옥은 어둡고 어두워 햇빛도 어두워, 의대에 혈서가 분명히 보존되었네. 처량한 고국에 영령이 돌아와, 응당 애산 향해 황제 혼 받들리라.[燕獄幽幽日色昏, 分明衣帶血書存. 淒涼故國英靈返, 應向崖山奉帝魂.]”<sup>52)</sup> 하였다. 문천상은 남송의 정치가이자 충신이다. 당시 원나라가 침입해 오자 가산(家產)을 털어 군사를 일으켜 근왕(勤王)하여 신국공(信國公)에 봉해졌고, 그 후 원나라 장군 장홍범(張弘範)에게 패하여 3년 동안 연옥(燕獄)에 수감되었으나 끝내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였다. 결구에서 말한 ‘애산(崖山)’은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큰 바다 중에 있는 요새지로, 남송 말에 장세걸(張世傑)이 황제 병(昞)을 받들고 이곳을 지키며 최후의 항전을 벌이다가 패하자, 육수부(陸秀夫)가 황제를 업고 바다에 빠져 죽은 곳이다. 문천상, 장세걸, 육수부를 가리켜 애해(崖海)의 삼충(三忠)이라고 한다.

마흔세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육수부’이다. 심언광은 시를 율기를 “대의가 그 같으나 약한 힘 어이할까, 애산에 해가 지니 폭풍이 심하겠다.

51)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岳飛’

52) 沈彦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文天祥’

차마 지체를 오랑캐 포로 만들 수 없어, 우리 임금 등에 업고 바다에 뛰어들었네.[大義其如弱力何, 崖山日暮颶風多. 忍將支體爲俘虜, 寧負吾君蹈海波.]”<sup>53)</sup>라 하였다. 육수부 역시 문천상과 마찬가지로 남송의 정치가이자 충신이다. 이 시는 앞의 문천상 시와 직접 연관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육수부는 애해의 삼충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심언광도 이러한 면모를 형상화하려 노력하였다.

마흔네 번째 작품은 「영사를 모방하다」의 ‘장세걸’이다. 심언광은 시를 읊기를 “조병의 육신 한 덩어리 남아있어, 넘어지고 깨진 상황에도 일 도모했네. 송의 덕 하늘이 응당 싫어함 알았으니, 잠시 바람과 파도로 배 뒤집어버렸네.[趙肉猶餘一塊留, 艱難顛沛尙堪謀. 也知宋德天應厭, 俄頃風濤便覆舟.]”<sup>54)</sup>라 하였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장세걸은 문천상·육수부와 함께 애해의 삼충이라 불린다. 심언광은 문천상을 이어, 육수부를 시로 형상화하였고, 삼충 중 나머지 한 사람 장세걸을 시호 형상화하였다.

#### 4. 인물 형상의 특질과 의미

이상 2장을 통해 심언광이 영사시를 창작한 배경을 밝혔고, 3장에서 44수의 영사시를 직접 거론해 인물 형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 가지 특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심언광은 영사시의 인물 형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심언광이 영사시를 통해 드러내려 한 주제는 절의, 일관된 삶, 소신, 나라에 대한 충성, 청렴, 알맞은 처세 등을 들 수 있다. 인물이 절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영사를 모방하다」의 ‘이제’, ‘예양’, ‘공승’, ‘설방’, ‘심유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인물이 절의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작품으로는 「영사를 모방하다」의 ‘양웅’을 들 수 있다. 앞 2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양웅은 한나라 때의 학자로 덕망도 있었으나 왕망이 세운 신나라의 대부가 되었던 사람이다. 심언광은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해도 절의를 저버리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또한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일관된 삶을 사는 것이

53)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陸秀夫’

54) 沈彥光, 『漁村集』 卷10, 「擬詠史」 ‘張世傑’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특히, 일관된 삶을 살지 않은 인물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령 「상산에서 지초를 캐다」에 나오는 상산사호와 「영사를 모방하다」의 ‘태공’, ‘사호’, ‘제갈량’ 등을 들 수 있다. 강태공과 제갈량은 은거의 삶을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심언광은 그런 그들의 일관성 없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상산사호와 관련한 작품은 두 작품이 있는데, 인물을 형상화하던 중에 이들이 당시 세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던 점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반면, 「영사를 모방하다」의 ‘사비’에서는 사비가 벼슬을 하다 은거의 삶을 살았던 것은 잘한 일이라며 시를 형상화하는 중에 주제 의식을 드러내었다.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인물의 소신이 중요하다는 것도 부각시켰다. 가령, 「영사를 모방하다」의 ‘왕가’를 들 수 있다. 왕가는 한나라 애제 때의 승상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애제가 동현이라는 신하에게 봉호를 더하려 하자 부당함을 들어 극력 반대하였다. 신하 입장에서 왕이 하는 일을 반대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왕가는 죽으면서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심언광은 왕가의 이러한 모습을 소신이 있는 태도로 평가하였다.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나라에 충성심을 보인 신하를 높이 평가하였다. 가령, 「영사를 모방하다」의 ‘오원’, ‘가의’, ‘주운’, ‘장홍’, ‘악비’, ‘문천상’, ‘육수부’, ‘장세걸’ 등의 작품을 통해 나라에 충성심을 보인 신하를 칭찬하며 주제 의식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관료자의 청렴을 주제로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해당 작품으로 「영사를 모방하다」의 ‘양진’을 들 수 있다. 3장 시에서 이미 살았던 바와 같이 양진은 ‘사지(四知)’를 언급했던 사람이다. 왕밀이 뇌물을 주려하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해도 하늘, 땅, 그대 그리고 내가 안다는 명언을 남긴 것을 시에 형상화하였다. 심언광은 영사시의 인물을 통해 알맞은 처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나타내었다. 가령, 「영사를 모방하다」의 ‘한산’, ‘장량’, ‘양표’ 작품의 주인공인 한산과 장량이 처세를 슬기롭게 한 점을 칭찬하였다.

둘째, 심언광은 대체로 인물과 관련한 사건 중심으로 영사시를 형상화하여 그 인물의 됨됨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질을 드러낸 시는 한두 작품이 아닌데, 「영사를 모방하다」의 ‘장구령’을 들어보자. 장구령은 당나라 현종 때의 명재상이었다. 그는 현종에게 안녹산이 반역할 관상이니까 후환을 없는 것이 좋겠다는 충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장구령의 그 말을 듣지 않아 결국

안녹산의 난을 맞이하였다. 심언광은 시의 기구와 전구에서 읊기를 “어양의 북소리 중원에 울려 퍼지고, 옥련이 구불구불한 검문을 나선다.”라 하였다. 기구는 안녹산이 난을 일으킨 것을 백거이의 시 내용을 빌어 형상화한 것이고, 승구는 현종이 궁을 빠져나와 피난을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영사시 ‘장구령’은 장구령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작품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장구령과 관련한 국가의 큰 사건을 들어 형상화함으로써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부각시켰다.

셋째, 심언광의 영사시를 보면, 어떤 인물의 죽음을 부각시킨 경우가 있다. 그 인물은 대체로 나라 일을 보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인데, 「영사를 모방하다」의 ‘부소’, ‘몽염’, ‘범중’, ‘마원’, ‘곡울광’, ‘오왕’, ‘악비’ 등을 들 수 있다. 부소는 시황제의 큰아들로 이사와 조고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하였고, 몽염은 진나라의 장수로 나라에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조고의 계략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했다 하였다. 곧, 몽염이 헛되이 죽었다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다. 범중은 항우의 모신이었는데, 결국 항의 의심을 받고 화병으로 죽었던 사람이다. 심언광은 범중을 ‘소장부’ 같더라 말하며, 헛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안타깝다 하였다. 마원은 후한 광무제 때의 무장이며 정치가인데, 왕의 부마에게 밋보여 참소를 당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 심언광은 능력 있는 정치가가 세력가의 참소를 받아 죽음을 맞이한 것을 시에서 부각시켰다. 곡울광은 북조 시대 북제의 장군인데, 위효관이 퍼트린 유언비어 때문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시에 나타내었다. 오왕은 당나라 측천무후 때 봉호를 받은 다섯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나라에 충성하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심언광은 시를 통해 오왕의 죽음이 원통하다 하였다. 악비는 남송의 충신이며 명장인데, 결국 진회의 모함에 걸려 39세에 생을 마감한 것을 시를 통해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심언광은 영사시 인물을 형상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특질을 드러내었다. 어떤 인물을 시로 형상화하는데, 그 인물과 관련한 나라의 사건을 들어 나타낸 것은 역사를 통섭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심언광의 역사에 대한 높은 식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언광은 영사시를 읊는 중에 주제 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었는데, 이는 곧 여러 인물 군상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심언광은 정유삼흉 중 한 사람인 김안로를 인정한 일 때문에 결국 말년에 탄핵을 당해 벼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처음 김안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가 한 말만 믿고 그대로 따랐는데, 나중에 김안로의 실체를 알고 진정 후회하였다. 이것이 아마도 심언광 자신의 삶에서 큰 오점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인물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난 역사 속 인물이지만 현실 속 인물과 대비시켜보기도 했을 것이다. 현실 인물을 직접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심언광이었기에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을 들어 평가함으로써 현실 속 불만을 해소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심언광의 영사시가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품 속 인물 형상화에 주목하였다. 본 논문이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15~16세기를 살았던 한 문인의 역사 인물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심언광이 영사시를 창작하게 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심언광은 어려서부터 역사를 섭렵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때문에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도 적재적소에 역사 속 내용을 끌어다 썼는데, 시에 있어 그 성과물이 바로 44수의 영사시라 판단하였다.

필자는 심언광의 영사시 44수의 인물을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살피기 위해 전 작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크게 세 가지 특질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 첫 번째 특질은 영사시의 인물 형상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절의, 일관된 삶, 소신, 나라에 대한 충성, 청렴, 알맞은 처세 등을 작품을 전개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주제로 드러내었다. 두 번째 특질은 인물과 관련한 사건 중심으로 영사시를 형상화하여 그 인물의 됨됨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나라의 큰 사건과 연관 지어 그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심언광은 영사시를 통해 어떤 인물의

죽음을 부각시켰다. 대체로 억울하게 죽음 경우를 들어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실 인물을 직접 비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심언광이었기에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을 들어 평가함으로써 현실 속 불만을 해소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 참고문헌

『어촌집』(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국문집총간 24)

박도식, 「어촌 심언광의 삶과 생각」,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22쪽 ; 26~33쪽.

한춘순, 「어촌 심언광의 정치 역정과 생애」,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186~203쪽.

『국역 어촌집』, 강릉문화원, 2006.

강지희, 「어촌 심언광 영사시(詠史詩)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49~81쪽.

박영주,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136쪽.

박위명,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주제적 특징」,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2, 강릉문화원, 2018, 22쪽.

반재유, 「어촌 심언광의 역사제재 한시에 관한 고찰」, 『연민학지』 41권, 연민학회, 2024, 349~375쪽.

(DOI : 10.22996/yonmin.41..202402.349)

송수환, 「어촌 심언광의 ‘십점소(十漸疏)’ 고찰」,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강릉문화원, 2014, 263~290쪽.

| Abstract |

## Personal Configuration and Meaning Shown in Youngsasi by Eoechon Sim Un-Gwang

Park, Myoung-hui  
Chonnam Univ. Lecture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ersonal configuration in Sim Un-Gwang's Youngsasi poetry as it was assumed that his poetry gave a focus on persons.

For the active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ackground he wrote Youngsasi. The poet was engaged in studying history as he had strong intention to read through history even though he was young. He used historical contents for his poetry and the results were assumed to be 44 pieces of Youngsasi poetry.

This study investigated his whole poetry to understand how he represented persons in 44 pieces of Youngsasi poetry.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re were roughly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rough personal images of his poetry, he clearly expressed thematic consciousness. Sim Un-Gwang naturally showed themes of fidelity, consistency in life, belief, loyalty to country, integrity and appropriate behaviors in his poetry. Second, he configured Youngsasi with person-related events to lead readers to understanding persons' nature. In particular, he intended to lead readers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persons he intended to express in respect to big events of the country. Third, Sim Un-Gwang featured death of a person through Youngsasi. Specifically, he gave a focus on unfair death.

As he understood the situation that real persons could be directly criticized, it was meaningful that he addressed grievances by evaluating persons in Chinese history.

**Key words** : Eoechon Sim Un-Gwang, Youngsasi, 「Ouiyoungsa」, 『Eoechonjib』, Gangreung, Gangwondo. Kim An-Ro, Injin.

투고일 : 2024년 7월 31일 심사기간 : 8월 1일 - 8월 13일 게재확정일 : 8월 16일